

# Issue Brief

JEJU WOMAN & FAMILY RESEARCH INSTITUTE

[No.23]

발행처: (재)제주여성가족연구원 | 발행일: 2017. 12. 15 | 발행인: 이은희

##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욕구조사

– 시설입소자를 중심으로 –

이연화

### 목 차

1.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
2.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
  - 1) 퇴소 후 생활계획 및 독립생활욕구
  - 2) 선호하는 주택형태, 주거지역, 주거지원
  - 3) 세어하우스에 대한 욕구
3. 주거지원 방향



## □ 연구배경

- 현행 주택관련 법에 의하면 주거복지대상인 여성 한부모,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여성들은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분양범위가 전체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자,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 등과 우선 분양을 경쟁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
- 더욱 주거복지가 필요한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이 혜택에 포함되지 못한 한계도 있음
- 그러나 가정폭력·성폭력·성매매 등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취업지원뿐 아니라 이들이 안전한 공간에 머물 수 있는 주거안정이 자립에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선행연구는 밝히고 있음
- 이를 반영해 여성가족부는 국토교통부와 연계해 퇴소 후 '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'을 수행하고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물량부족, 2가구 주거 시 공동생활로 인한 갈등,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주거지원 부재 등의 문제가 있음
- 본 연구는 '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'의 대상자인 제주지역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폭력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를 조사해 이들의 욕구가 반영된 주거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

## □ 조사개요

- 조사대상 : 2017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인권상담소·시설협의회 폭력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피해자보호시설 7개 기관에 입소한 여성 51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음
- 조사방법 : 제주특별자치도 피해자보호시설 관련 종사자의 안내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
- 조사일자 : 2017년 10월 26일 ~ 11월 15일

## 1.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

-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(68.6%)은 가정폭력 보호시설입소자이며 연령은 30대(33.3%)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40대(29.6%), 20대(25.4%) 순으로 나타남(평균연령 35.9세). 혼인상태별로는 기혼(27.5%)인 경우와 이혼소송 중(27.5%)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혼(21.6%), 이혼(19.6%)순임
- 응답자의 자녀수는 1명(29.4%)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3명이상(23.5%), 미혼(21.6%), 2명(17.6%)순이며 현재

과반수이상(68.6%)이 미취업상태이지만 취업(31.4%)의 경우도 일용직(13.7%)이 가장 많아 이들이 퇴소 후 자녀와 함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 있음

〈 표 1 〉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

(단위: 명, %)

구분		빈도	비율	
전체		51	100.0	
피해시설입소경로	가정폭력 피해	35	68.6	
	성폭력 피해	8	15.7	
	성매매 피해	8	15.7	
연령	10대	2	4.0	
	20대	13	25.4	
	30대	17	33.3	
	40대	15	29.6	
	50대	3	6.0	
	60대	0	0.0	
	70대	1	2.0	
평균 35.9세				
혼인상태	기혼(현재 배우자가 있음)	14	27.5	
	이혼	10	19.6	
	이혼소송 중	14	27.5	
	사별	2	3.9	
	미혼	11	21.6	
자녀수	1명	15	29.4	
	2명	9	17.6	
	3명 이상	12	23.5	
	자녀없음	4	7.8	
	미혼	11	21.6	
취업상태	취업	정규직	3	5.9
		임시직	6	11.8
		일용직	7	13.7
	합계	16	31.4	
미취업	35	68.6		

- 응답자의 시설입소 전 취업상태를 살펴보면, 취업이 64.7%로 과반수 이상이며 취업인 경우 정규직(19.6%)과 일용직(19.6%)이 가장 많았음. 폭력피해 여성의 경우 시설입소 전 취업이 시설 입소 후에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

〈 표 2 〉 시설 생활 전 취업상태

(단위: 명, %)

문항	취업					미취업	전체
	정규직	임시직	일용직	농업	합계		
전체	10	8	10	1	33	18	51
	(19.6)	(15.7)	(19.6)	(9.8)	(64.7)	(35.3)	(100.0)



## 2.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

### 1) 퇴소 후 생활계획 및 독립생활 욕구

- 시설 퇴소 후 생활계획으로는 '본인이 독립적으로 살 곳을 마련하여 생활하기를 희망'하는 응답이 25.0%로 가장 많으며 폭력피해자유형별로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'본인이 독립적으로 살 곳을 마련하여 생활하기를 희망'(32.4%), 성폭력 피해자들은 '월세금 지원받아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를 희망'(37.5%), 성매매 피해자들은 '전세금 지원받아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를 희망'(50.0%)하는 경우가 많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음

〈 표 3 〉 피해유형별 시설퇴소 후 생활계획

(단위: 명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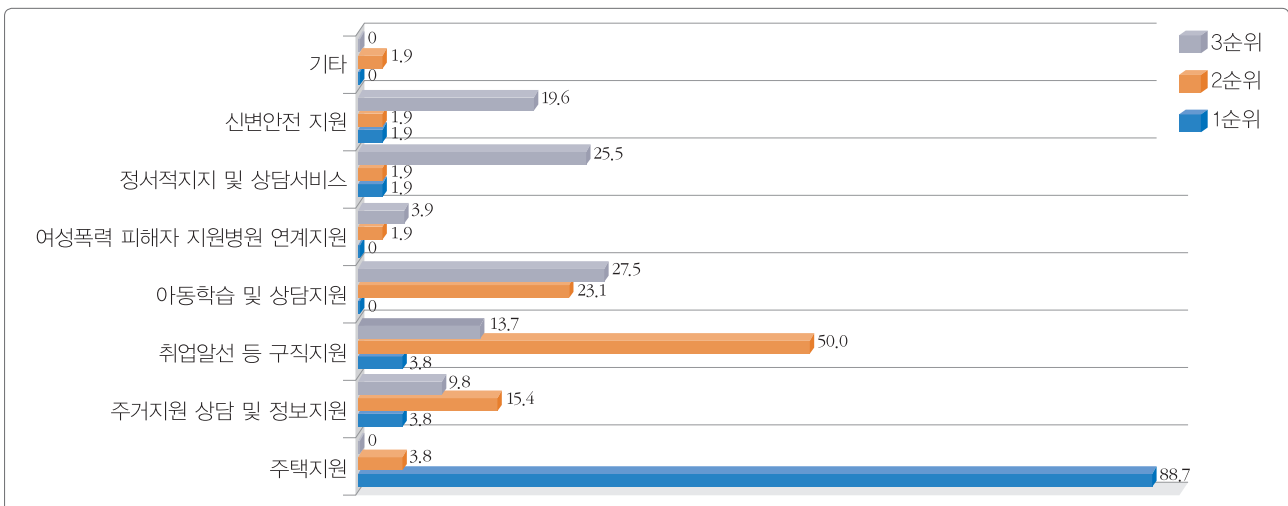
문항	원가 정으로	가족·친지에게 갈예정	타시설 또는 타기관 입소 희망	전세금 지원 받아 독립 생활 희망	월세금 지원 받아 독립 생활 희망	일정액 임대료 부담비슷한 사람들과 생활희망	본인이 독립적 살 곳을 마련 생활 희망	기타	모르겠음/아무런 계획이 없음	전체	$\chi^2$
전체	4 (7.7)	3 (5.8)	6 (11.5)	12 (23.1)	6 (15.4)	3 (5.8)	13 (25.0)	2 (3.8)	1 (1.9)	50 (100.0)	
가정폭력피해자	4 (11.8)	1 (2.9)	4 (11.8)	8 (23.5)	1 (2.9)	2 (5.9)	11 (32.4)	2 (5.9)	1 (2.9)	34 (100.0)	26.824 *
성폭력 피해자	0 (0.0)	2 (25.0)	2 (25.0)	0 (0.0)	3 (37.5)	1 (12.5)	0 (0.0)	0 (0.0)	0 (0.0)	8 (100.0)	
성매매 피해자	0 (0.0)	0 (0.0)	0 (0.0)	4 (50.0)	2 (25.0)	0 (0.0)	2 (25.0)	0 (0.0)	0 (0.0)	8 (100.0)	

\*p<.05

- 시설을 나가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 제주도가 제공했으면 하는 서비스 1순위로 주택지원(88.7%)이 가장 많음. 2순위는 취업알선 등 구직지원(50.0%), 3순위는 아동학습 및 상담지원(27.5%)으로 나타남

〈 그림 1 〉 시설을 나가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제공했으면 하는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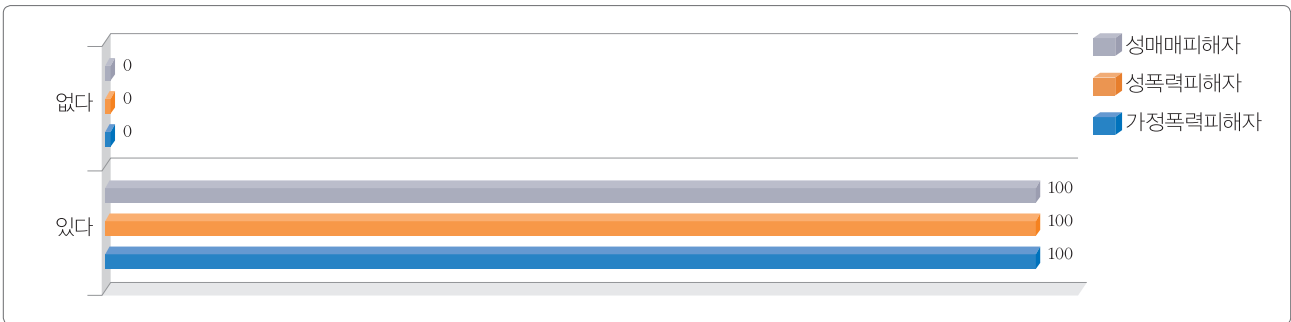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폭력피해 여성들은 퇴소 후에 본인이 살 곳을 마련하든 정부의 지원을 받은 독립생활을 원하며 그 결과 독립생활을 위해 주택지원을 가장 선호한다고 볼 수 있음
- 또한, 제주도가 주택 및 주거지원을 해준다면 독립적으로 생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폭력피해자 유형과 관계없이 응답자 모두 의향(100.0%)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남

〈 그림 2 〉 주택 및 주거 지원 시 독립생활 여부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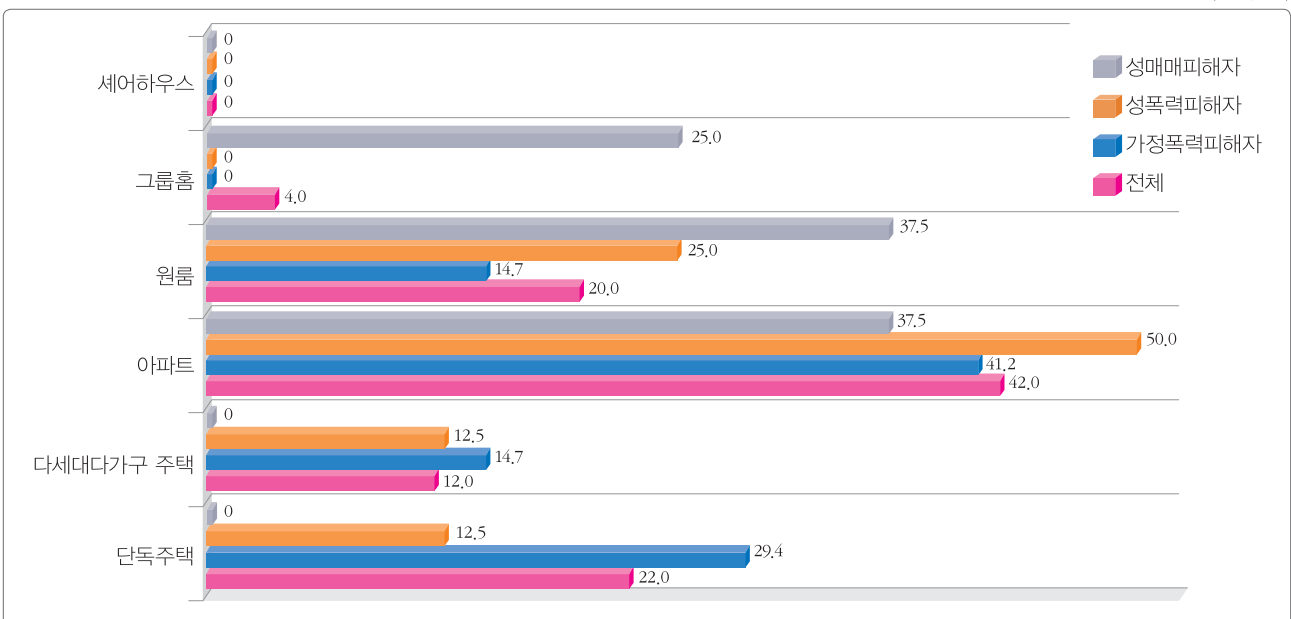


## 2) 선호하는 주택형태, 주거지역, 주거지원

- 독립 생활시 폭력피해 여성들이 희망하는 주택형태로는 아파트(42.0%)가 가장 많으며 폭력피해 유형별로 가정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 모두 아파트(각각 41.2%, 50.0%), 성매매 피해자는 아파트(37.5%)와 원룸(37.5%)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

〈 그림 3 〉 희망하는 주택형태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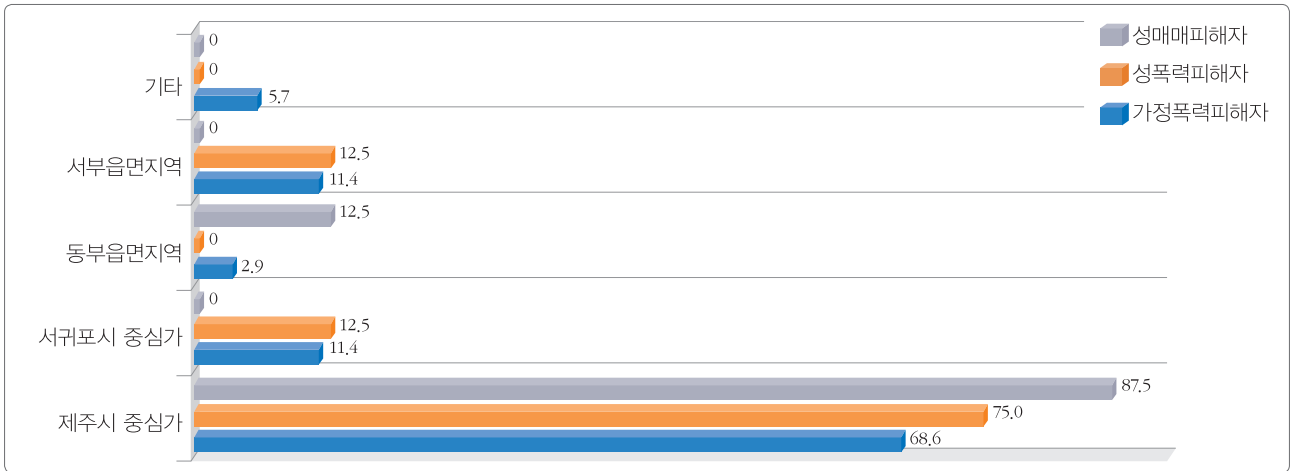


- 독립 생활시 희망하는 지역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, 성폭력 피해자, 성매매 피해자 모두 제주시 중심가(각각 68.6%, 75.0%, 87.5%)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



〈 그림 4 〉 독립생활을 원하는 지역

(단위: %)



- 본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정책으로는 임대아파트 입주 지원(62.7%)으로 나타남. 그러나 피해자 유형별로 성매매 피해자는 월 임대료 지원(62.5%)을 더 선호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

〈 표 4 〉 피해유형별 제주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면 하는 주거지원

(단위: 명, %)

문항	필요 없음	월 임대료 지원	년세 지원	보증금 융자지원	전세자금 융자지원	주택구입 자금융자 지원	임대 아파트 입주	기타	전체	$\chi^2$
전체	1 (2.0)	7 (13.7)	3 (5.9)	0 (0.0)	2 (3.9)	3 (5.9)	32 (62.7)	3 (5.9)	51 (100.0)	27.822 * *
가정폭력 피해자	1 (2.9)	2 (5.7)	3 (8.6)	0 (0.0)	1 (2.9)	2 (5.7)	23 (65.7)	3 (8.6)	35 (100.0)	
성폭력 피해자	0 (0.0)	0 (0.0)	0 (0.0)	0 (0.0)	0 (0.0)	0 (0.0)	8 (100.0)	0 (0.0)	8 (100.0)	
성매매 피해자	0 (0.0)	5 (62.5)	0 (0.0)	0 (0.0)	1 (12.5)	1 (12.5)	1 (12.5)	0 (0.0)	8 (100.0)	

\*\*p<.01

- 폭력피해 여성들은 도심 중심지역에서 주거생활을 하길 원하며 저렴한 월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집합주택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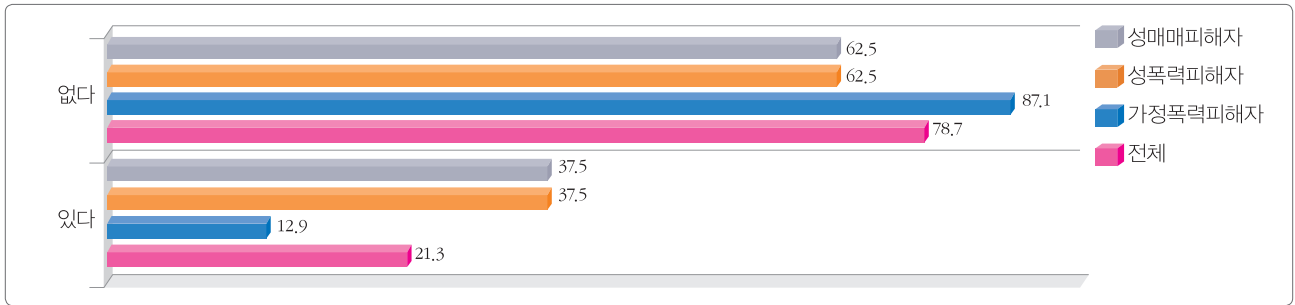
### 3) 셰어하우스에 대한 욕구

- 현재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사업의 하나로 한 주택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쓰는 셰어하우스<sup>1)</sup>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폭력피해 여성들은 침실은 개별적 사용하고 거실과 화장실, 부엌공간을 공동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'주거 의향이 없는'(78.7%) 것으로 나타남

1) 셰어하우스란 관리인 없이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지만, 거실·화장실·욕실 등을 공유하는 생활방식

〈 그림 5 〉 셰어하우스에 사실 의향(침실은 개별적 사용하고 거실과 화장실, 부엌공간을 공동 사용하는 공동주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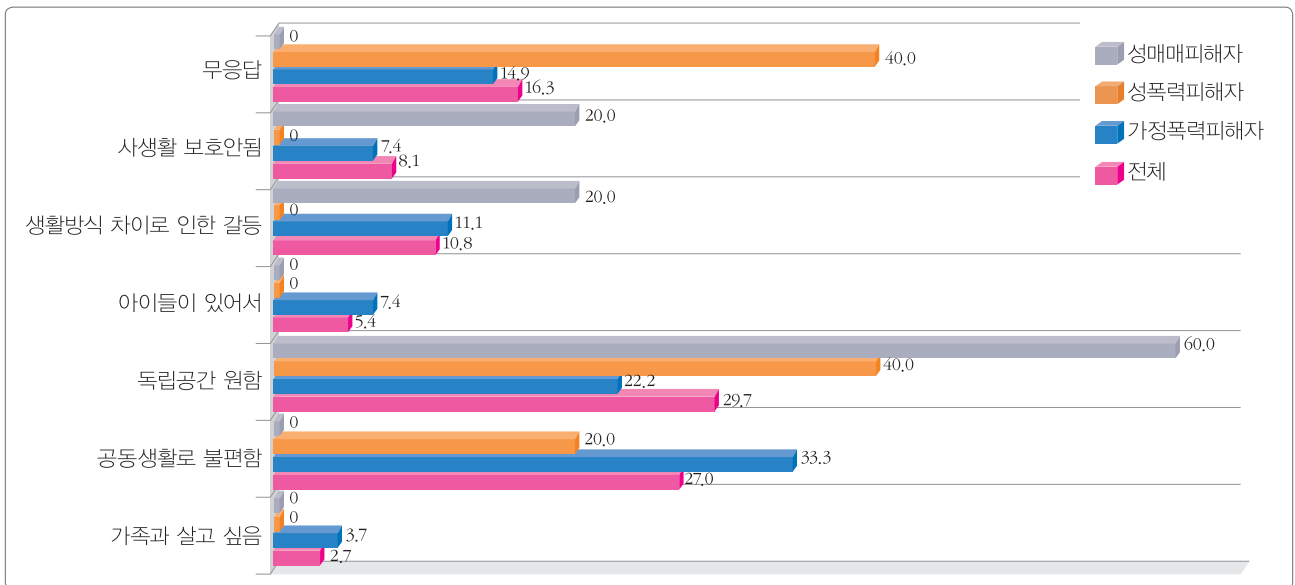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위 셰어하우스에 주거할 의향이 없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‘독립공간을 원하기때문’(29.7%)인 것으로 나타남. 폭력 피해유형별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‘공동생활로 인한 불편함’(33.3%), 성폭력 피해자들과 성매매 피해자들은 ‘독립공간을 원함’(각각 40.0%, 60.0%)이 가장 많았음

〈 그림 6 〉 침실은 개별적 사용하고 거실과 화장실, 부엌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셰어하우스에 사실의향이 없는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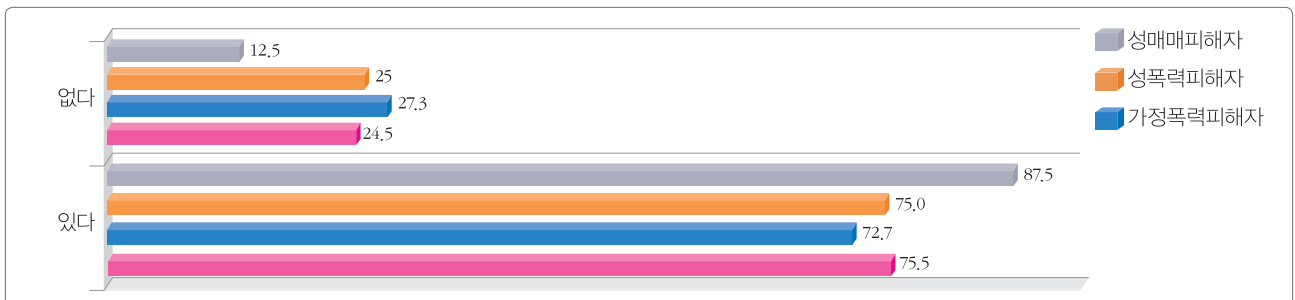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그러나 거주공간(생활공간)은 개별로 되어 있으며 커뮤니티 공간(체력단련실, 책읽는 공간 등)만 따로 있는 셰어하우스에 대해서는 주거할 의향이 있는 것(75.5%)으로 나타남

〈 그림 7 〉 거주공간(생활공간)은 개별로 되어 있으며 커뮤니티 공간(체력단련실, 책읽는 공간 등)만 따로 있는 셰어하우스에 사실의향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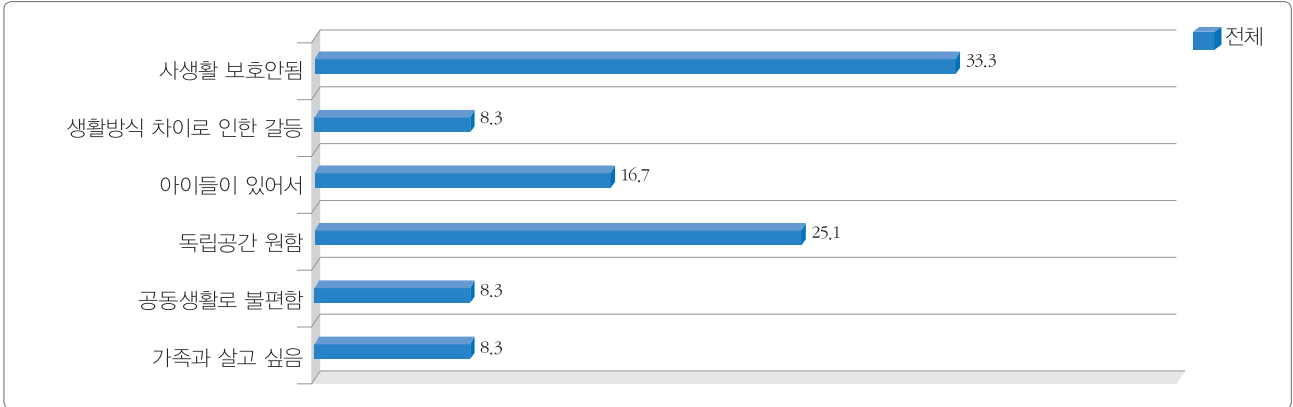




- 그러나 주거할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무응답을 제외하고 '독립공간을 원함'(25.1%)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. 그 다음 순으로는 '아이들이 있어서'(16.7%)로 나타남

〈 그림 8 〉 거주공간(생활공간)은 개별로 되어 있으며 커뮤니티 공간(체력단련실, 책읽는 공간 등)만 따로 있는 세어하우스에 사실의향이 없는 이유

(단위: %)



### 3. 주거지원 방향

- 세어하우스 공급 추진 모색 필요
  - 폭력피해여성들은 퇴소 후 본인이 살 곳을 마련하든 정부의 지원을 받든 독립생활을 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제주도가 주택지원을 가장 많이 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
  - 특히, 제주시 중심지역에 독립생활이 가능한 집합주택을 선호하고 있어 높은 주거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어하우스 임대주택을 공급·보급할 필요가 있음
-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고려
  - 성매매 피해자들은 제주도가 주택 및 주거지원을 해준다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의향이 있으며 임대아파트 입주 지원보다 월 임대료지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지원 뿐만 아니라 현금지원을 통한 주거지원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
- 폭력피해여성들의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강화
  - 폭력피해여성들은 아이와 함께 거주하거나 또는 아는 지인과의 공동거주를 선호하기도하고 보호시설의 공동 생활로 인한 불편함으로 혼자 생활을 원하기도 함. 따라서 주거복지센터는 폭력피해여성의 다양한 주거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주거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적절한 주거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

